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0. 31 ~ 2021. 11. 20 제256호



포토에세이

모래 위에 지은 집



▲ 파키스탄 아이들. 제공: 백우현

손가락 사이로 고운 모래알들이 흘러진다. 작은 발가락 사이에도 모래알들이 들어와 간지럽힌다. 쌓아올렸다 허물어지고 다시 쌓아올리고. 종일 모래성을 쌓으며 놀아도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의 추억을 잘 아신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주신 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주셨다. “애야, 너 어릴 적 모래성을 쌓으며 놀 때 그 집이 잘 허물어지지 않더라? 내 말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믿음도 허물어진단다. 그러나 순종하면 진리를 경험하지. 그런 사람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거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이다. 주님과 견고한 집을 짓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마태복음 7:26)

[GPNNEWS]

아이티, 선교단 가족 17명 납치... 살해 위협

수도, 최대 40%가 갱단에 장악

지난 16일(현지시각)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스(Christian Aid Ministries)’ 소속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아이티에서 납치된 가운데 최근 이 단체가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납치된 이들은 아이티 수도권인 포르토프랭스 인근에서 사역해 왔으며, 16명의 미국인과 1명의 캐나다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고아원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 무장한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크리스천 에이드 사역자는 “인질로 잡힌 이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그분을 신뢰 하길 원한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번 납치 배후로는 ‘400명의 마우조(Mawozo)’ 갱단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티에서는 올해 들어 이와 비슷한 납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인권분석연구소(CARDH)의 이달 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이티에선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628명이 납치됐다. 7월 31명, 8월 73명, 9월 117명 등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납치 범죄는 주로 전문 범죄조직의 소행이다. 이들은 보통 몸값을 내놓을 만한 중산층 이상이 납치의 주요 타겟이 되지만 딱히 대상을 가리지도 않으며, 몸값은 대상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달라진다. 지난 8월 대지진으로 2200명이 숨지는 등 아이티에서 대형 자연재해

가 잇따르면서 구호 활동을 위해 들어온 활동가나 선교사들도 납치의 표적이 됐다. 지난 6월엔 한국인 선교사 부부도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서 납치됐다 1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이티 갱단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한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당시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재발을 우려해 군대를 해체한 상태였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는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정부가 빈민가 민간인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인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로, 현재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40%가 갱단에 장악된 상태다. 게다가 지난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 후 아리엘 앙리 총리가 대신 이끄는 정부는 급증하는 범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GPN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0)

십자가는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유유히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릴 때, 너무나 맛있게 생긴 한 마리 지렁이가 물속에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식욕이 당기고 지렁이가 맛있다는 것밖에 다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덩석 지렁이를 물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물고기의 입을 찢어지도록 확 낚아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 속에 있는 낚시줄 바늘에 아가미가 켜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물

위 어딘가에서 당기는 저항할 수 없는 거센 힘에 끌려 올라갈 때, 그제서야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던 낚시줄이 보였습니다. 찌가 움직이고, 줄을 따라 낚시대가 나오고, 그 낚시대를 따라가 보니 거기 무시무시한 낚시꾼이 허죽이 웃으며 강한 힘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회를 치든지 매운탕을 끓여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의 운명은 낚시꾼에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끼만 물었을 뿐이지만,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줄과 낚시대에 연결된 채 낚시꾼에게 끌

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 곧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요한일서 3:8).

죄를 짓는 이유가 감상적이든, 합리적이든,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종이 되어 지배를 받습니다.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저지르는 것은 간단해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러스트=김경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그 머리를 박살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죄 아래 살던 ‘나’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GPN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英, 노방 전도자들 체포... 그러나 무죄판결 이어져



▲ 영국의 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다 체포된 전도자들이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낸 가운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unsplash

영국의 거리전도자들이 노방 전도하는 도중 체포, 수감 당하는 등 전도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시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4명이 “경찰의 체포는 합법적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당시 마이크 오버드, 돈 칸스, 마이크 스톡웰, AJ 클라크는, 이들의 설교가 불쾌했다는 일부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바디캠에 찍힌 체포 장면에서 오버드 씨는 경찰에게서 “당신은 반사

회적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경찰들이 군중 속에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아유꾼들에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방 전도자 4명 모두 무죄로 석방됐고,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랄튼 판사는 경찰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랄튼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표현으로 인한 불쾌감, 불안, 괴로움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4명에게 랄튼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찰관들이 청구자들의 실제 연설 내용에 관해 갖고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이들이 인종적·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자들의 연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기보다, 주된 문제는 이미 불법적인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보였던 일부 대중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소를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던 조슈아 슈트클리프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한 혐의로 데이비드 맥코넬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 약 6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에 그는 부당 체포, 허위 수감, 인권 침해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을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풀 카운티 법원에서 승소했다. 책임을 인정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맥코넬 씨에게 3250파운드(약 510만 원)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GPNEWS]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성경 등 종교 경전 앱 삭제 강요

중국 당국이 애플의 ‘올리브 트리 바이블 앱(Bible App by Olive Tree)’나 ‘꾸란 마지드(Quran Majeed)’와 같은 종교 경전 앱 삭제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져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가 빅테크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CBN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성경이나 꾸란 앱이 종교적 문건 또는 자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리브 트리’ 대변인은 “중국 앱스토어에 우리 앱을 복구하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의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더블(Audible)과 기독교 서적이거나 무슬림 서적을 읽어주는 앱들도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다. 오더블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얻지 못해서, 지난 9월 중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중국 당국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성경 등 종교 경전 앱 삭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unsplash

이러한 조치는 다른 업체들이 중국 내 서비스를 철회한 이후 나온 것이다. 릴리저스뉴스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인기 언어학습앱인 듀오링고(Duolingo) 역시 많은 비디오 게임과 더불어 중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 “더욱 까다로워진 중국 내 운영 환경 및 규정 준수 요건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주요 링크드인(LinkedIn)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종교 박해는 1년 만에

100건이 넘는 등 계속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공산당이 종교 집단을 중국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려는 중국화 시도가 14건, 중국 당국이 종교 구조물과 상징물을 파괴하고 약탈한 사건이 23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내 박해의 증가가 쓰촨성, 허베이성, 푸젠성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브라질, 쓰레기 트럭 뒤져 끼니 해결... 극빈자 1900만 명 달해

브라질에서 최근 물가 급등과 실업률 증가로 빈곤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유층이 거주하는 바이후 코코 지역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트럭을 뒤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이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여파와 물가 급등, 실업률 증가로 극빈층이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의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 뿐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美 참전 군인, 20년간 3만여 명 자살... 전쟁 후유증 심각

최근 미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사태 이후 20년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참전자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3만여 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참전자들의 자살률이 민간인을 앞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상 군인들의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오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안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미국의 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돌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마약 사범 8월까지 1만 명 넘어... 젊은 층에서 급증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8월에 1만 명을 넘어 올해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해 지난해 29~39세 이하 마약 사범은 총 9054명으로, 5년 전(3183명)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10대 마약 사범 증가세도 두드러져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313명으로 5년 전(128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오늘 한국사회의 혼란이 교회의 영적 각성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일인 줄 알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영혼들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1월 1일 ~ 11월 20일

11월 1일 ~ 11월 6일 11.1(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1(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1~5(09~16시)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11.1~5(10~13시) ▶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11.1~5(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1~6(10~20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1.5(10시)~6(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11.5(12시)~6(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5교회 진행중.

11월 8일 ~ 11월 13일 11.8~13(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9(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1.9~12(14~16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11(21~23시) ▶ 경기 화성 / 예승센터(온라인,중)(박**)010-5541-4891, 11.11(0시)~12(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11.12(09~21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12~13(05~17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11.13(09~18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625-6004, 그 외 5교회 진행중.

11월 15일 ~ 11월 20일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1.15(10시)~16(17시) ▶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 (온라인,중)(홍**)010-3191-8622, 11.16,18~20(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18(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성도 200여 명의 작은 교회, 전 세계 100개국 대상 선교 열매

“개척교회도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 개척 때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한 교회가 10여 년 만에 100여 개국의 제자를 발굴



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교회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복음가득한교회(담임 조성욱 목사. 사진). 출석 성도 200여 명 남짓한 이 교회는 2002년부터 남미 쿠바 지역을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전 세계 대륙을 종횡으로 누비며 열방에서 주님의 제자를 찾아,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본지는 이 교회가 지난 10여 년간 순종한 과정을 인터넷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에 매주 월요일에 ‘조성욱 칼럼’으로 소개되고 있는 당대 세계 복음화의 일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당대 세계 복음화 사역의 시작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마 24:34, 막 13:30) 도둑같이 올 것이고(마 24:43, 계 3:3), 속히 올 것인데(계 22:20), 세계 복음화가 되면 오신다(마 24:14).’고 하셨다. 그 말씀을 받은 초대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오신다고 믿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 생애를 드렸다. 바로 그것이 당대 세계 복음화의 믿음이고 사역이다.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우

리 세대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기도와 고민으로 당대 세계 복음화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2012년 1월, 하나님의 인도로 나라와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미국 마이애미에 갔다. 주님의 제자를 찾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선교단체 ‘에코 쿠바’를 찾게 되었고, 회장인 닥터 테오와 여 간사와 대화하는 중에 한 분의 목회자와 연결이 되었다. 그 후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이 목회자와 교회를 2년간 총 5회 정도 도왔고, 그를 통해 중남미의 문이 열렸다.

중남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아시아 대륙에서 만났던 아프리카 목사님 한 분을 계기로 아프리카로 인도를 받았다. 아프리카는 열악한 대륙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륙이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나라의 대표들이 한국으로 초청이 되기도 했다. 준비된 리더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었고, 이후 숫자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깊이도 채워가며 인도 받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공산권과 이슬람권, 불교권 등 아시아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났고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에서도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대륙을 각각에 맞게 세우고 계신다. 그렇게 2019년 모든 대륙에서 약 100개국에서 제자들이 찾아졌고, 이후 더 다양한 나라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

니카라과에서의 여정

과테말라에서 약 20시간을 달려 니카라과에 도착했다. 니카라과는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분이 준비한 사역이었다. 첫 지역인 남부를 향해 출발하기 전, 레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다. 레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협의체 ‘더웨이(THE WAY)’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제안을 얘기해 주었다. 20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하고 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 니카라과에서 진행된 집회 © 조성욱

첫 집회를 하며 기도하던 중에 레닌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첫째로는 듣는 대상을 위함이었고 둘째는 레닌 목사님을 위함이었으며 마지막은 앞으로 진행될 사역의 모든 무게 중심을 레닌 목사님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였다. 그렇게 첫 집회의 첫 강의를 레닌 목사님께 맡겼다.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고 열정적이며 자기 것으로 소화한 복음을 전달하시는지,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도 눈물이 났다. 마치 오

늘 내가 바울을 보고 있는 아나니아가 된 것 같았다. ‘중남미 복음화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정말 감사했다. 계속될 니카라과 사역이 기대되었다.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뜨겁게 반응하는 청중

이들때 사역은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했다. 오늘은 강의 3강 중 2강을 레닌 목사님이 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강의하려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다. 준비해 간 말씀은 뒤로 하고 음성

으로 마이크 없이 핵심만 전달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당신 인생이 바뀐다.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바뀐다. 당신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 이뤄질 수 있다.’ 짧지만 강하게 전달했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들렸다. 참여한 사람들은 참 순수했다. 말씀의 이해도도 괜찮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단의 리더인 에레네스토 목사님이었다. 예의 있고 친절하고 나름 중심도 있고 영향도 있는데 아직 못 알아듣는 듯했다. 내일

이 이 나라 사역으로는 마지막인데 최종적으로 계속 이 분을 통해서 니카라과 사역을 진행할지 아니면 방향을 돌릴지 인도받으려고 한다. 끝까지 인도받아야 하기에 계속 기도할 것이다.

니카라과의 복음화, 길이 열린다

니카라과 마지막 날까지 정해진 사역을 소화하면서 느낀 것은 니카라과의 영적인 자원은 너무 좋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원을 끌고 가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끝까지 인도받고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주께서 니카라과 복음화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다가왔다. 그러던 중 한 니발 목사님을 만나 30여 분 정도 말씀을 전했다. 그는 가장 큰 교단에 있으며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육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순수한 목회자! 그는 우리가 전한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답했다. “지금껏 사역하며 무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늘 찾고 있던 그것을 성경으로 정확히 말해주니 이제야 내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니카라과에서 집회를 열자!” 목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리액션보다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했다. 이미 레닌 목사님과는 잘 아는 사이이기에 더더욱 감사하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복음으로 통하고 성경적 전도로 통하게 되니 앞으로의 사역이 너무 기대된다. [GPNEWS]

전국 이후 가난한 나라 한국의 첫 선교사, 최찬영 선교사 소천

1948년 건국 이후 한국교회가 처음 파송한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가 10월 19일 오후 6시 50분(미국 시간, 한국 시간 20일 오전 10시 50분) 미국 LA에서 소천했다. 향년 96세.

1955년 4월 영락교회의 파송에 배를 받고 이듬해 1956년 6월 태국에 부임한 최찬영 선교사는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였지만,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수십 년간 세계성서공회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총무로 섬기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GDP)은 66달러인데 비해 태국은 한국의 두 배가 넘는 138달러였다.

최 선교사는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난 뒤 부모를 따라 만주 연길로 이주했다. 1945년 간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을 맞이한 후 서울로 옮겼다. 남산에 있던 장로회신학교에 재학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공산군에 여러 번 잡혀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9.28 수복 후 미군 통신정보대 통역관, 육군 군목으로 활동했고, 1954년 독립운동가로 순교한 김예진 목사의 딸인 김광명 사모와 결혼했다.

최 선교사는 태국 부임 초기 태국교회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언어공부를 하며 정착했다. 처음 몇 달간 태국에서 BIT신학교 교수

로 활동하다 그의 역량을 인정한 미국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례적으로 태국 현지인을 위한 방콕 제2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방콕 기독교병원 원목, 태국성서공회 총무로 섬겼다. 특히 1962년 6월 아시아인 최초로 태국·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취임했고, 197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로 취임해 1992년까지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 번역, 인쇄, 반포에 주력했다.

최 선교사는 1983년 중국을 처음 방문했고, 1985년 1월 중국교회 지도자와 만나 성경 10만 부를 찍을 성경 용지 100톤을 요청받고 지원을 도왔다. 이후 애덕기금회를 설립해 1987년 12월 난징에 최신식

인쇄공장을 세워 중국 본토에서 성경을 발행했다. 이 인쇄공장에서는 지금까지 1억 권이 넘는 다양한 언어의 성경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교사는 은퇴 후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5년간 교수로 활동하고, 선교단체 GEDA(Global Evangelization & Development Agency) 인터내셔널 총재 등으로 섬겼다.

최근까지 최 선교사를 만나 본지에 그의 삶을 소개한 오영철 선교사는 “정말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였지만, 초기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최 선교사는 성실한 삶과



▲ 고 최찬영 선교사. © 오영철

헌신적인 태도로 존경을 받으며,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회고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63)

인간과 동물의 DNA가 비슷한 이유? 공통 설계자 때문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자들은 아이들에게 '비평적 사고'를 가르친다. 그 방법은 "모든 생명체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로 '모든 생명이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 기독교 아이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모든 생명체가 2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실이 공통 설계자의 지능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아이들의 설명이 허용될까?

아마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기본 20개의 같은 아미노산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먹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황색 소가 녹색 풀을 먹고, 노란 버

터가 되는 하얀 우유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금발 머리를 가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교과서에서 직면하게 될 거짓말들 중 하나가 이 모든 유사성들이 공통 조상을 증명한다는 생각이다.

한 교과서는 '인간과 오랑우탄은 96%가 유사하고, 그것이 1500만 년 전의 공통 조상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전적 차이는 1.6%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인간과 침팬지는 수천 가지의 차이가 있다. 유전자 계통 프로젝트의 연구 지도자 바니 매독스는 "인간과 침팬지의 1.6%의 유전적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적어도 4800만 개의 핵산의 차이로 계산된다. 그러나 단 3개의 핵산의 변화조차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1.6%의 차이였다고 해도 여전히 큰 차이인데, 시간이 지나 진화론자들은 95%의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5%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최근에는 7.7%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진화론자들에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30억 개 중 단 100만 개의 DNA염기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인간 DNA암호의 3000분의 1만 분석한 결과다. 이것으로 인간 계통(유전체) 전체가 다 해독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프랑스 국립 해독센터는 "염색체는 8700만 쌍 이상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모두가 다 해독되어서 염색체 지도에는 공백이 없다. 이것이 해독된 가장 긴 연속적인 DNA 조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8700만 쌍은 인간 계통에서 발견된 30억 쌍 중의 일부분이다. 게다가 아직 그 안에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며, 차이는 이미 7.7%다.

한 연구자는 "인간 계통에 2만 개의 가짜 유전자인 위유전자(슈도진, pseudogene)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이 진화를 증명한다. 실제로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유전자는 없다. 그 유전자들은 몇 가지 목적을



▲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이 공통 조상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DNA가 비슷한 이유는 설계자가 같기 때문이다. © unsplash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들은 진짜 유전자로부터 독을 유인하는 미끼 구실을 한다. 둘째, 그것들은 예비 체계 역할을 한다. 우리의 컴퓨터에 자동 백업장치가 있는 것과 같다. 한 조각의 메모리가 파괴되면 위유전자가 바로 뛰어 들어서 파괴된 것을 대체한다. 사람들은 위유전자들을 체내에서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다. 그들은 쥐를 상대로 실험했고, 쥐들은 끔찍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하는 일이 없는 위유전자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같은 설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성의 비율이 관계를 증명한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구름이 100% 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수박은 97%가 물이다. 단지 3%의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해파리는 98%가 물이다. 그러나 해파리는 구름과 수박의 중간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GPNEWS]

복음의 능력

가짜 회개에 속지 말라!

기독교를 믿는다는 고백이 회개는 아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피상적 변화, 부분적 개혁 또한 회개는 아니다. 죄인이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가? 성직자의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교인임을 의지하는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는 것,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깨끗하게 사업하는 것,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의지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 하건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결코 통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회개를 증명 해주지는 못한다.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철저히, 신속하게 돌이키겠다고 결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는 쉬지 말라.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인도=K 선교사



선교 통신

인도, 코로나 정점 이후 이전의 삶 돌아가... 힌두 축제로 다시 산당 설치



▲ 8월 말에 진행된 세례식에서 61명이 세례를 받았다. © K 선교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삼상 2:21)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게 되면 더 풍성한 열매와 복을 주시는 원리를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함께 16년을 사역한 현지 목회자인 순일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질문 앞에 섰다. 그를 꼭 살리고 다시 사역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더 컸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사람에게 의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더 한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회개한다.

지난 7월 구제사역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600가정을 넘어, 1310가정을 섬길 수 있었다. 현지에서 몸으로 수고해 주신 현지 사역자들, 한 마음으로 재정과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일부 남은 재정은 올 겨울에 따뜻한 이불을 사서 도와 드릴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구제사역을 통해 새신자들이 많이 생겼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다.

인도는 코로나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8월 초부터 학교와 중

교 기관, 상점들은 제한 없이 열게 되었다. 우리는 8월 말에 코로나 봉쇄령으로 미뤄왔던 세례식을 진행했다. 디그라 교회와 비라즈푸르 교회 성도 총 61명이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초신자들이 여러모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기임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순일 목사님은 직장암 3기로 치료 중에 있다. 8월 초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은 체나이 근처 벨로르 C.M.C(Christian Medical College)에서 항암치료를 받는다. 9월 초에 잠깐 방문했을 때, 이전의 힘 있고 자신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여기저기에 치료의 상처가 있는 환자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였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그가 다시 집으로, 교회로, 학교로, 우리 모두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 믿는다.

지은 지 9년이 되어 가는 우리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생긴다. 특히 올해 많

은 비가 내리면서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벽에 금이 갔다. 에어컨 실외기와 차 안에 쥐들이 살면서 전기선을 갹아먹어 망가뜨리기도 한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16년간 관리하고 유지해 놓은 사역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10월 둘째 주에는 이 지역의 가장 큰 힌두 축제(다체라)가 열린다. 벌써부터 길에 산당을 설치했고 며칠 뒤면 여신 우상을 앞질 것이다. 여러모로 영적 싸움이 심하다. 사람들은 어느 산당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가 구경 다니며 그곳에 절을 한다. 부자들은 차를 타고 도시를 넘나들며 구경도 하고 경배도 한다. 여기서 시골은 산당 주변에 큰 장이 들어서는데, 교인들도 그 장을 구경하러 가기도 한다. 혹시 안 가고 있으면, 풍습을 지키지 않는다며 안 믿는 가족들의 핀박이 심하다. 성도들이 힌두 축제의 유혹과 핀박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G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 부흥을 꿈꾸는 황재규 선교사(와이넷 미션)



© WMM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창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청년들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나가던 군중 속에서 한 여자 청년이 외친 소리였다. 당시 찬양을 마저 이어갔던 한 간사가 그때 심경을 들려주었다. “이런 일을 처음 맞을 때면 움찔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요.”

거리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와이넷 미션은 기타와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를 나선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와이넷 미션팀장 황재규 선교사를 취재진이 만났다.

- 와이넷 미션은 어떤 단체인가요?

황재규(이하 황):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단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선교완성이 반드시 온다고 믿는 청년들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기도하며 선교완성을 바라보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 팀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황: “지역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죠. 찬양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이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해요. 캠퍼스에서,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강의, 복음강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황: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씩 맡아서 강의하고, 질문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일은 사실 쉬워요. 그러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알아가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각자가 그런 누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면서 말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제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각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준비되는 거군요.

황: “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7명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완성도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면서 선교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이것이 삶이 되고 즐거움이 된 사람이면 이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선교사들과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와이넷 미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전을 갖게 됐던 동기가 궁금해요.

황: “요한복음에는 감동적인 몇 장면이 나와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미천한 인간을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에 간 여인을 너무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이야기. 38년 동안 세

상에서 말하는 병신으로 살아가며 스스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을 모두가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으시고 사랑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보잘 것 없는 미천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감동이 돼요.”

중3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다

-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황: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다가 중3 때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데다 의지할 곳이 없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때 하

됐어요. 그러다 2011년도에 다시복음앞에 집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때 강사였던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호주 시드니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40년 동안 조지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며 전도를 했지만, 단 한번도 자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목사로부터 그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2주 만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전도를 통해 14만 6000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불이 붙었어요.”

- 그 날 이후 전도를 하셨겠네요?

황: “그때가 전주지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이나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택시를 타거나 주유를 할 때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영혼을

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프랭크 제너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제게도 도전이 된 것처럼요. 준비된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는 주님이 기대가 돼요.”

거절하는 이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황: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물론 거절당한 사람들은 여럿 있죠. 예수님 믿으시라며 ‘예’자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잠깐 주춤했다가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된다.’고 전하고 왔어요. 쫓겨난 적도 몇 번 있고, 무슬림을 만난 적도 있어요. ‘나는 알라를 믿는다.’고 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멍청하기도 했어요. ‘극단 이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네요.”

- 아까 전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자녀분들도 함께 하던데요?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는 시간은 어떠세요?

황: “한 번은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지 못하고 주춤했어요. 저도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하고 복음을 외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 어땠냐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대답했어요. “하빛아, 아빠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 아빠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 이 이야기를 하고는 오히려 제가 목상이 됐어요. 나 같은 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지. 가끔 전도하다가 주춤될 때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6면에 계속)



▲ 전국 곳곳 시내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와이넷 미션팀. © 복음기도신문

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전했죠. 그렇게 되니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거군요.

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들이 더 뜨거워져서 기도모임도 만들고 친구들과 전도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하철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이후 여러 시간을 거쳐 28살에 순회선교단에 들어오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짧은 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주님이 놀랍도록 전도대상자를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건 제가 말을 잘 하거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후 여러 팀을 거쳐 오다가 와이넷 미션으로 오면서 전도 여행도 가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 전도 이야기를 좀 더해주세요.

황: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10대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자라나게 하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7)

더 큰 죄인에게 말기신 은혜의 사명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8)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신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이다. 뒤로 물러갈 여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돌아갈 길은 없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외엔 남은 건 멸망밖에 없다. 이렇게 단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사람,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 그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솔한 도전 가운데 더 큰 죄인에게 임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코 망설일 수 없도록 하신다. 반

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바울은 말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던 자신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한다. 가장 큰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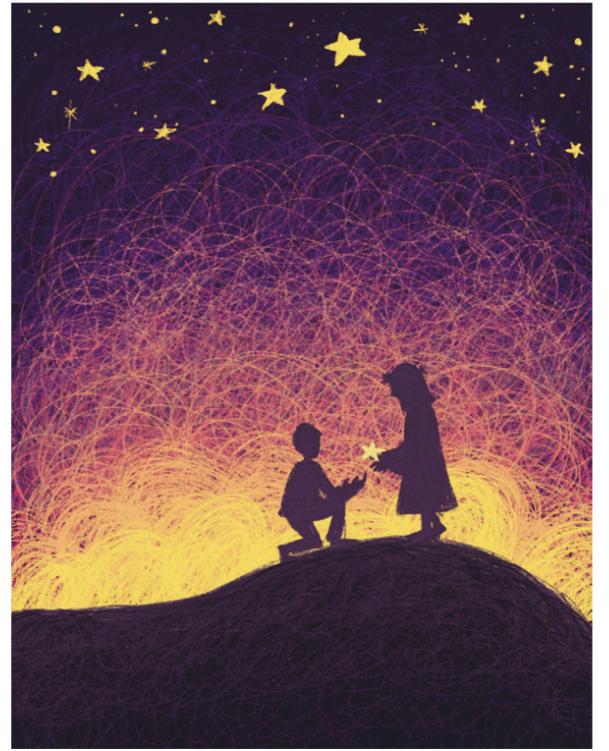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죽던 해, 절망 가운데 성전 앞에 엎드린 이사야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

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뵈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죄인이구나. 끝장났구나.’ 하고 탄식한다. 그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타고 있는 숲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며 선언하신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큰 은혜를 받은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를 보며 너를 위하여 갈꼬”(사 6:8)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갈꼬.’라고 주님이 물으신다. 절망했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신다. 그는 말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복음 앞에 서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 큰 은혜 앞에 선 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에 응답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1:16)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누가 소망 없는 기가 막힌 죄인입니까? 이 감격에 사로잡힌 죄인 중에 괴수,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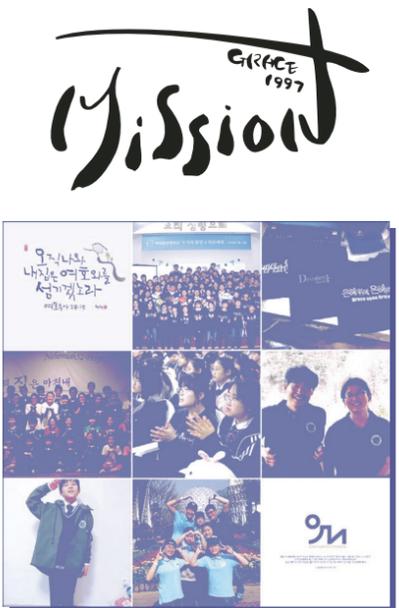


일러스트=이예원

임하셨다. 이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모든 인류의 고백이어야 한다. 은혜의 복음만이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기가 막힌 위기와 비참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 (2018년 5월) <끝> [GN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GRACE 1997 Mission

●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티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Interview (5면에 이어)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의 부흥은 반드시 올 겁니다!”

주고 싶고, 그 사랑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이낫 미션에는 20대 간사가 5명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20대 개신교인은 14%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선교단체에 헌신된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한 국교회의 소망으로 비춰졌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하람: “와이낫 미션은 ‘청년부흥’을 꿈꾸는 단체예요. 시편 110편 3절의 약속의 성취를 꿈꾸는 단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많은 청년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옷 입은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순종’일테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정욕을 피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와이낫 미션이 하는 일은 사실 별거 없어요.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팀 멤버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는 게 다죠. 또 엄청 많이 먹기도 해요.(웃음) 저는 입대를 앞두고 6개월 짧은 시간만 섬기고 있지만, 너무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옷 입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테니까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하도록 기도하게 돼요.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부흥은 올 겁니다. 반드시!”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한 기독교 학교의 교육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학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한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 이 건 절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 그렇다 할 삶의 이유나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있어서 살아온 것이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저를 주님은 붙잡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옛 습성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급급해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릴 때면, 제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이



일러스트=고은선

끝나면 지친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편안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든지 교만할 수 없도록 매일의 묵상과 언제든 갈 수 있는 기도실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즈음 묵상하고 있는 시

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변함 없이 사랑하실까요? 학교

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관계로 대하

지 않고 일로 대하는 것이 익숙해져버려 지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무능한 자신과 전능하신 주님 사이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피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제가 아닌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결론이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GPNEWS]

김영한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알코올 중독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Q 알코올 중독으로 입·퇴원을 되풀이하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재정상황도 어렵고 모든 상황에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A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 나오려고 수차례 입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게다가 맘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으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형제님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이 형제님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콜에서 격리시키는 병원 환경을 통해 형제님을 개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형제님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완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나요?

소망없던 형제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형제님의 그 고통과 죄를 자기 것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형제님의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의 정체성이 형제님 안에 확립되고, 형제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GPNEWS]



北 주민들, 자식 고생시킬 바에 차라리 안 낳아... 저출산·비혼 심각



▲ 북한의 저출산·비혼 문제가 심각하다. © pixabay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자식을 낳아 고생을 시킬 바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 시대 들어서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한 명은 낳아 남들보다 더 잘 키우겠다는 욕망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낳지 않는 것을 택한다.”고 전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 당국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새로운 육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육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해 전국적인 젓(우유)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젓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젓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북한의 출산율은 젓 제품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면서 “자식을 낳아 고생시킬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당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보다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생계유지 곤란이 더 근본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당국이 제시한 유인책은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꼬집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자는 노동단련대 생활이 시작된다

는 유행어가 있다.”며 “그만큼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시선이 그리 밝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므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GPNEWS]

北 기아 ‘심각’... 영양결핍 인구비율 세계 6위

북한이 심각한 기아 상태를 겪고 있으며, 영양결핍 인구비율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아일랜드의 국제인도주의단체 킨선월드와이드가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발표한 ‘2021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기아지수 25.2점으로, 116위가 최하인 순위 중 96위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아위험이 높은 국가이자 ‘심각’(serious) 단계에 속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42.4%로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59.5%), 중앙아프리카공화국(48.2%), 아이티(46.8%), 예멘(45.4%), 마다가스카르(43.2%)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 아동비율은 2.5%, 발육부진 아동비율은 19.1%, 영유아 사망률은 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000년 39.5점으로 ‘위험’ 수준이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2006년 33.1점, 2012년 29.1

점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극히 위험’에 속하는 나라는 소말리아(50.8) 1개국 뿐이었으며, ‘위험’에 9개국, ‘심각’에 37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기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월 전체 인구 중 영양부족 비율,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및 사망률 등을 종합해 기아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기아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최종태의 <두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됨

올해 구순이 된 원로 조각가 최종태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1958년부터 지금까지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얼굴>, <기도하는 사람>, <손>, <두 사람> 등과 같은 대표적인 연작은 50~60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 온 작품들이다. 똑같은 주제를 지속하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경험을 녹여냈을지를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이 들곤 한다. 그중 <두 사람>은 제목대로 두 명의 기도자를 조각한 것으로, 1975년부터 시작하였다. 작가가 가톨릭 신자여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김효임, 김효주 자매를 조각한 것으로 보지만, 정작 작

가는 이 작품이 누구를 조각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목구비를 단순화하여 추상에 가깝게 만든 형태는 관람자들에게 <두 사람>이 누구인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누군가는 사역의 동역자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일지 모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부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50년 가까이 각각 다른 재료,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이 <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얼굴은 둘인데, 손은 하나이다. 한 몸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포개어 기도하는 형상이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일까. 마침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던 나에게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단순하지도 한 번에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가 나를 사랑하도록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를 향하고 있다.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최종태, <두 사람>, 1979년, 나무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생존 모드 vs. 생명 모드

2021년 한국교회의 중요한 도전은 미래의 생존 가능성이다. 심각한 한국교회의 교인 감소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분명해진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교회 최대 두 교단의 교인 감소 비율은 거의 18%이다. 장로교 합동측이 2010년에 295만 명에서 2020년에 238만 명으로, 통합측은 285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줄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교인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생존의 위기이다.

코로나 시대에 개척한 비커밍 교회

오늘 방문한 '비커밍 교회'는 이런 질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이다. 비커밍 교회는 2021년 4월에 개척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다.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비커밍 교회는 6월에 현재 장소를 계약했다. 그런데 7, 8월에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9월이 되어야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인사동은 주택가가 아니라 거주인들이 많지 않다. 교회 개척에서 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비커밍 교회를 개척한 박정윤 목사의 고백은 놀랍다. "개척의 은혜가 너무 커서 힘들고 어려움보다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커밍 교회'는 인사동 주변부의 약한 공동체이다. 1년도 안된 연약

함의 요소가 겹겹이 겹쳐 있다. 위치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 지하 2층에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교회 간판도 없고 흔한 십자가도 없다. 주일 오전에만 세워놓은 교회 배너가 유일한 교회 표지이다. 인사동은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들리는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그에



▲ 비커밍 교회 예배 현장. © 오영철

비하면 비커밍 교회는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은 존재이다. 아니 아예 없는 존재이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다.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척자인 박정윤 목사의 확신 있는 고백이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자연스럽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비커밍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시

작되고 이어져왔는가를 말해 준다. "갤러리 주인인 회장님은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비커밍 교회는 선교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경

개척자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를 소개하고 광고하도록 한다. 교인 중에서 원하는 교인들은 개척하는 교회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실제로 서울드림교회의 성도들이 개척준비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대형교회를 이루어 이름을 크게 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생존 모드가 아니라 생명 나눔 모드이다.

비커밍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도 성공하고 있는 개척교회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대교회는 로마시대의 주변부였다. 생존조차 버거웠던 초대교회는 제국 로마를 변화시켰다. 주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비커밍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노력하고 있다.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교회

교회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비커밍 교회의 짧은 교회 개척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보여준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역동'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GPNEWS] 오영철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9. 30 ~ 10. 20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영주 김유남 김정희 김형숙 김효영 노은옥 박민숙 박성규 박현숙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은종숙 이상원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순희 조재희 조형광 차상복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고현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신한테크 셀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강교회 오예교회 오이코노모스미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교회 헝시바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